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8호 [부제 제25461호] 주제 105 (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소장 박정천동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인 육군중장 리성국동지, 군단정치위원인 육군소장 리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사나운 풍향을 헤치고 남조선괴뢰군 강패무리들이 동지를 들고있는 연평도가 손에 잡힐 듯이 바라보이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구상에 의하여 새로 조직된 갈리도전초기지는 서해해상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적들의 위협에만 한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진압하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평해를 굳건히 방위하며 만약 적들이 조금이라도 허튼짓을 한다면 즉시 열적의 포화를 불의할수 있게 전면적 강위력한 화력타격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실, 교양실, 식당, 온실등을 돌아보시고 지휘관들은 색다른 음식이 한가지 생겨도 지식들부터 생각하고 낚시가 조금만 차지도 지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심정으로 군인들을 따듯이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여 그들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하



장재도방어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편편 휘날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도 다시 비읍게 된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험천만한 자기들의 설초소에 벌써 네번째로 찾아오신 원수님을 위하여 《만세!》의 환호성을 리쳐올리였다.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어린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향명어린이를 알아보시고 태어난지 6개월밖에 안된 얘기를 안아주던 날이 었게살았는데 플라보게 있다고 살뜰히 두부를 어루만져주시였으며 방어대장의 딸이 그런 그림들도 한장, 한장 환한 미소속에 보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온실, 축사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생활 개선이자 싸움준비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위해 자기들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위해 신랄장이 땀도록 뛰여야 한다고, 병사들을 위하는 지휘관들의 마음이 뜨거우면 병사들은 추위도 추운 줄 모르며 천무모의 사랑을 부어주는 지휘관들이 곁에 있으면 적들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전선수역에서 생활해도 마음이 든든해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시면서 설초소군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파로운 언덕길을 오르시며 감시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연평도를 굽어보시면서 적의 역량과 기세들의 배치상태와 적정을 토해하시고 새로 조직된 갈리도전초기지의 역량과 기세의 배치상태, 제4군단판하 부대들의 전선해상경계근무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박정천 포병국장으로부터 갈리도전초기지를 포함한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의 연평도대

상문라격임부분담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화력타격계획전투문건을 승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진지들을 돌아보시고 최고사령부의 직전적기도에 맞게 갈리도전초기지의 전투진지들을 잘 꾸렸다고, 모든것이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안차단들을 더욱 견고하게 설치하고 감시체계를 완벽하며 섬경계근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새로운 주제적섬포병전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포병화력지휘통신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린첩성방어대들과의 화력협동과 지휘를 짜고들어 적대상물에 대한 화력타격의 일치성과

순차성, 신속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갈리도전초기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갈리도전초기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섬 갈리도뒤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초소를 목숨바쳐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초기지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우리 당의 선군혁명전선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장재도방어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맞이하는

